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활용의 현황과 과제

金京善*

1. 서론

중국 각 대학 한국어학과들의 4년제 학부교육은 1·2학년 단계의 기초교육과 3·4학년 단계의 전공과목으로 나뉘어 교과과정이 배정되어 있다. 기초 교육 단계의 교육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전공과목 커리큘럼은 지역 및 교수진에 따라 또 학생들의 진로나 취직 방향에 따라 대학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다르다. 그렇지만 모든 대학들에서 문학 강독(문학선독)과는 필수 전공과목으로 설치해놓고 있다.¹⁾

문학교육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그 역사를 같이 하지만 그동안 기초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보다 관심과 초점이 모아진 상황이어서 한국 문학을 교수하기에 적당한 한국 문학 교재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

* 중국 北京外國語大學

1) 필자가 최근 중국 북경지역을 제외한 18개 대학의 교수들을 상대로 한 조사 자료를 보면 대학에서 한국문학 강독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모든 교수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지동(2000: 101), 강은국(2000: 109), 이국장(2000: 118), 김해수(2000: 12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라서 어느 작품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작품을 성공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수의 노력과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이를 볼 때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그 역사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처해 있으며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한국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는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미 발표된 논문들도 구체적인 교수법 연구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담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²⁾

실지로 문학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많은 연구자들의 원론적인 논의와는 달리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문학 강독 수업이 명실상부한 문학수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년간의 직접적인 문학 강독 교수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교수의 과정과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2. 수업 목표와 실제 수업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의 경우 교수는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경우 텍스트에 있는 정보도 다 전수해 주기 어려운 특이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교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떨칠 수가 없

2)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역사 또는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한국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는 필자가 이는 바로는 논문 3편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9월 18-19일에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한국 문학교육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하였지만 실지 발표된 논문은 6편에 지나지 않는다.

다. 학생들의 언어능력 부족과 텍스트의 언어능력 잉여가 만나서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하며 추상적이기까지 한 정보들을 학생들이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교육 목적과 교육 현실간의 괴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가들은 문학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육목적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여 왔다.

많은 연구기들과 교육자들은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므로 문학교육은 언어문화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한용은 언어문화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것은 문학이며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때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지적하고 있다(우한용, 2000). 윤여탁은 기초적 단계에서의 문학을 활용하는 한국어 학습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언어문화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수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윤여탁, 1999: 4). 김대행은 영국의 문학교육이 하급 학년에서 문학작품 읽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문학 교육을 도구 수준의 언어활동 자료이자 방법으로서 문화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김대행, 1997: 4).

필자가 이번에 중국의 한국어과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로는 한국문학 강독을 통해 얻는 효과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모든 교사들이 공통으로 답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교육 목표로 문학교육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개인성장 모델을 설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문학교육의 목표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자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업 모델들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연구자들은 문학 텍스트를 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보다 언어 학습의 매개 혹은 문화 전달의 통로로 바라본다면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의 폭이 제한되고 학생들이 텍스트의 고유한 미학을 향유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성찰적으로 수용하고 텍스트의 미적 특성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단계까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기성, 2003). 이런 시각의 연장으로 여러 연구자들은 이상적인 문학 수업 대체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놓고 있다. 윤영과 박청은 석사 학위 논문에서 각각 「소나기」,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이상적인 수업모형을, 이기성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영상 매체와 결합시켜 수업 모델을 제시해 놓고 있다(윤영, 1999: 56-65/박청, 2002: 45-79). 이들이 지향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문학작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과 이해이다. 이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 문학 강독 수업이다. 그러나 수업 현장에서 언어 모델, 문화 모델, 개인 성장 모델 중 학생들에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중국의 문학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이해시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기본적인 차원의 교육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초급 단계³⁾에서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일상 언어를 배우면서 교육적, 교훈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규범성, 유형성을 띤 문장만을 배우는데 주로 언어의 규칙이나 체계성 치중되어 있고 습득된 지식또한 대체로 분석적이며 파편적이기 때문이다(김대행, 2003: 33). 따라서 이들이 이해하거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는 가장 기초적인 차원의 언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실제적이고 다양하며

3) 중국에서 말하는 초급단계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서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학생들은 3학년에서 보통 1차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5급 시험을 보고 있으며 특별하게는 6급을 통과하는 학생도 있다.

풍부하기 그지없는 문학 언어를 갑자기 접하게 되면 낯설고 어렵게 느끼며 읽어내지 못한다. 문학 언어는 문어적 언어와 구어적인 일상어, 규범적이고 유형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문장, 거기에 비유나 상징, 속담 같은 관용적인 표현까지 겹친 언어들이기 때문이다. 문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곳곳에 많이 잠재하여 있는 한국문화적인 요소들이다. 단어 하나, 인물의 대화나 행동에도 한국적인 문화들이 용해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자나 교사들이 주지하고 있고 또 많이 논의된 바여서 자세한 서술은 삼가기로 한다.

다음으로 한국문학을 배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과다한 단어량이다.⁴⁾ 중국의 대학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3학년 1, 2학기나 4학년 1학기에 문학 강독 교수를 하고 있다. 필자는 96년에 3학년 1학기 학생들에게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을 첫 작품으로 문학 강독 수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한국을 접하거나 한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학습 여건이어서 학생들은 책에서 배운 것 이외의 한국어나 한국문화 지식이 별로 없었다. 그 때까지 교재 속의 일상 언어만을 배워왔던 학생들이라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단어량에 거의 절망하는 표정들이었고 작품을 읽어내려 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황인교는 섬세하고 깊이 있는 묘사와 풍부한 어휘를 담고 있는 작품일 수록 학생에게는 어려움이 커진다면 『메밀꽃 필 무렵』을 한국어로 읽는다는 것은 한국인에게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라 하였다(황인교, 2001: 419). 필자가 최근 한국어를 만 2년 배운 본교 상위권 학생들을 상대로 낱말을 조사해본 결과 『메밀꽃 필 무렵』에서 체크된 새로운 단어가 대

4) 이 점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략 220개였다. 약 8,000자 밖에 안 되는 짧은 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어휘량이다. 이는 비슷한 분량의 소설 『소나기』가 105개⁵⁾ 정도의 낱말이 체크된 것에 비하면 배 이상 되는 양이다.

학생들이 한국 문학작품을 배움에 있어서 어휘로 인한 어려움은 단지 과도한 단어량에만 있지 않다. 한 작품에서 몇 백 개 이상의 단어가 나온다면 단어만 습득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든 단어가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사전에서 애써 찾았거나 선생님이 뽑아서 해석해 준 단어들의 의미는 구체적인 문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들이 허다하다. 가령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라는 문장 중 “여물다”는 사전식 해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문학작품들에서 사전식 해석과는 그 뜻을 달리하는 단어들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부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의 분량이 적지 않으며 학생 스스로 읽어서 터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황인교는 교수 현장에서 풍부한 문맥을 활용하여 어휘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주요한 내용에 집중하여 많은 어휘를 문맥에 따라 읽어가며 처리하는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쪽으로 교수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문학작품의 어휘가 갖고 있는 문맥적 의미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황인교, 2003: 420). 왜냐하면 교사는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의 문맥적 의미를 사전식으로 해석하여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든 예에서의 “여물다”란 단어를 낱말로 올려놓고 중국어로 “清澈”로 해석해 준다면 원칙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해당 문맥에서 중국어로 달리 해석을 해주어야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5) 같은 수준의 학생들에게 조사를 의뢰하였다.

중국 학생들이 한국문학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한국적 논리의 문장들이다. 어려운 단어가 없어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고 또 문맥에서 특수하게 쓰인 의미도 없으며 한국적인 특수한 문화적 배경도 없는데 학생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⁶⁾ 내용을 완전히 엉뚱하게 파악하는 문장들이다. 한국인에게는 더없이 쉽고 일상적인 문장들이지만 오히려 이런 문장들이 중국 학생들에게는 난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문학작품에서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 드러나지 않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가. **그러니** 외딸인 제가 그런 국제결혼의 시금석이 되겠다 말인가
 나. **하기야** 그런 의미에서도 일찌감치 미국 혼반을 맺어두는 것도 그리 해로울 건 없지 않나. **아무렴** 우리보다는 낫게 사는 사람들인데, 좀 남 보기 체면이 안 서서 그렇지?⁷⁾

-전광용, 「꺼삐딴 리」 中

위의 문장에서 “체면이 안 서다”를 빼면 특별히 어려운 말이 없어 사전을 찾을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학생들한테 해석을 시켜보면 이해를 엉뚱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원인은 한국어의 특별한 언어논리와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 하기야, 아무렴, 좀”과 같은 단어들이 문장에서 쓰이는 특별한 뉘앙스로 인해 달라지는 문장의 의미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중국 학생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관문인 것이다.

문학이란 개인이 의식적으로 심미적 가치를 구하여 일상 언어습관을

6) 학생들에게 이런 문장들을 해석해보라고 시키면 어려운 것도 없고 모르는 단어도 없는데 해석을 못하겠다고 하는 문장들을 만나게 된다.

7) 1994년 명문당에서 펴낸 『한국대표작선집』 제2권 405쪽, 407쪽에서 발췌하였다.

질서 있게 세련시킨 것에서부터 생활습관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남은 것이 현대생활에 적응되어 전승되어 온 것까지 있다. 때문에 문학의 내용 중에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 민족의 문화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실지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난해해 하는 문장들은 단지 단어들의 특이한 뉘앙스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의 의미나 의식⁸⁾은 가시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앞뒤 상황에 따른 한국인 특유의 의사 전달법이라든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정서적이고 심층의식적인 것과 같은 한국적인 사유, 한국적인 논리, 한국적인 정서, 한국적 의식의 문장들은 중국인들에게는 아리송하고 난해한 것들이다.⁹⁾

과다하게 많은 어휘, 문맥적 의미로만 쓰이는 단어, 단어의 의미는 알아도 문장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 한국어 논리적인 문장들의 겹침, 한국인의 심층의식, 거기에 한국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문학 강독 수업 초기에는 전적으로 작품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이 갖는 언어구조적 특성이나 문체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단어나 관용어, 수사적 특성을 파악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3.2 한국문학 수업의 실제

작품 내용 이해를 위해 필자는 교사가 학생들과 같이 작품을 상세하게

8) 박청은 이런 한국문화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특징적 요소들을 통 털어 '문화 내용'이라고 하는데,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며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9) 이런 문제들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지 언어 환경에서 이런 것들은 자신도 모르게 숙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읽어 나가면서 해석해주어 이해를 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런 방식의 교수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한 학기 주당 4시간, 18주 72시간을 수업 했는데 겨우 소설 4편 정도 읽힐 수 있었다. 작품의 문학성에 관한 질문도 주로 본문 이해를 중심으로 두 세 개 정도를 가지고 토론을 하지만 광범위한 토론과 깊은 분석은 하지 못했다.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문법적 오류, 어휘 사용 오류, 작품에 대한 지나치게 엉뚱한 시각을 시정해주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난해한 문학용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학기를 끝내고 나면 겨우 단편 네 편을 가지고 한국문학작품을 가르쳤다고 할 수 있을지, 학생들이 한국문학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방대한 한국문학 작품량에 비해 겨우 단편 네 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문학작품을 선생님과 같이 읽는 작품과 학생 스스로 읽는 독서 작품으로 나누어 혼자 읽기가 어려운 작품은 교사와 학생이 같이 읽고, 일부 읽기가 쉬운 작품¹⁰⁾ 약 네 편 정도를 별도로 읽어오게 했다. 그리고 작품 감상문을 써오게 하거나 소설 원문을 각자 일부 분담하여 번역해오는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독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다. 그 외 일부 영상자료를 구할 수 있는 작품들은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작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영상자료의 이용은 내용이 어렵거나 긴 작품을 교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 학기에 약 8편 정도를 읽고 나면 한국 소설에 대한 초보적이고 감성적인 이해는 하게 되며 쉬운 작품은 혼자 읽어 내려갈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내용을 이해하는 실력이 꽤 늘어난다.

10) 필자가 교수를 접할 수 있는 작품의 범위에서 학생들이 과외 독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황순원 『소나기』, 황석영 『삼포로 가는 길』,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등 네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 강독 수업을 마치면 수업 내용으로 삼는 문학작품 선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소설이라는 장르 하나에만 치우치게 되고 현대 문학작품만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8개 대학 중 14개 대학에서 한국문학사를 강의한다고 답했다. 경북외대에서는 4학년 2학기에 한국문학사라는 과목을 설치해 가르치고 있다. 수업 시수는 주당 2시간에 14주로 총 28시간의 수업을 하게 된다. 방대한 수업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한국문학통사를 전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원의 문학사를 강의할 수가 없다. 게다가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상적인 문학사 내용을 강의한다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대하는 수업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필자는 이 교과목을 한국문학 강독과 연관시켜 한국문학사 교수에서 필요하면서도 한국문학 강독에서는 취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학사적이면서도 문학 강독적인 수업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순으로 장르적 특성에 따라 고전문학은 고전시가와 고소설로 먼저 나누고 고전시가를 다시 고대시가(구지가), 향가(서동요), 고려가요와 경기체가(청산별곡, 한림별곡) 악장(용비어천가 서장), 시조(수편), 가사(관동별곡 일부) 등 장르를 구분하여 전체적인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각 장르의 개념, 특징들을 소개하고 매 장르마다 그 장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작품 한 편 정도를 구체적으로 읽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니 학생들이 독특한 장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수업하기가 수월했고 필자가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향가에 대해서도 모국어가 중국어인 학생들은 향찰 형식의 표기가 있었다는 점에 신기해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들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업 효과가 훨씬 좋았다.

고소설에서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춘향전』 등을 줄거리를 먼저 소개하고 고소설의 특징을 요약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춘향전』을 영화를 보고 아주 짧은 부분을 발췌해 읽게 한 후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고소설의 문체적 특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을 선택했다. 토론은 먼저 발표물을 준비시켜서 하는데 모두 영화를 본 후여서 나름대로 견해와 주장들을 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재미있어 하고 수업분위기도 활발했다. 그러나 4학년 2학기인 만큼 취업 부담과 졸업 부담이 만만치 않아 수업토론을 위한 것이거나 작품 감상을 위한 리포트 준비를 여러 번 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대문학 부분에서는 연대순으로 문학 단체나 문학 사조들을 소개하면서 이상화, 김소월, 한용운, 정지용, 김광균, 박용철 등 시인들의 대표 작품을 교수하고 이광수, 김동인을 비롯한 소설가들의 작품을 조건이 허락하면 영상자료를 이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에서 대략 30년대 문학까지 다루고 나면 종강을 해야 하고 학생들의 졸업시험을 봐야 할 시간이 된다.¹¹⁾ 이렇게 한 학기 문학사 수업을 끝내면 대체적으로 한국문학에 대해 상식적이고 통사적인 지식을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된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국문학사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이 나왔다.

이와 같이 필자는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해 언어문화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국문학 강독과 한국문학사를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업을 조직하여 왔으며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음이 확인된다.

11) 김대행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교수-학습의 방법을 경험의 원칙, 반응의 원칙, 모방의 원칙, 비교의 원칙 등 네 가지로 설계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방법이다(김대행, 2003: 37-39).

4. 중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본 대책

정상적인 논문의 순서대로라면 이제는 결말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문학교육 현장의 장래를 위해 여기서 부연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 사족을 달아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문학교육에 관한 연구도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고 한국문학교육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교재도 별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의 논문들은 물론 최근에 발표된 몇 편의 논문들도 한결같이 적절한 한국문학 강독 교재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박은숙, 2004: 516 / 지수용, 2004: 528).

지금까지 필자는 본인이 편찬한 『한국문학선집』(1998, 外研社)을 텍스트로 삼아 교수를 해 오고 있으며 매번마다 새로운 작품에 대한 교수를 한두 편 시도해왔다.¹²⁾ 사실 이 책은 문학선집이지 문학 강독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는 아니지만 아직 제대로 편찬된 문학 강독 교재가 없는 형편에서 이 책을 텍스트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검증은 거치거나 문학 강독을 목적으로 편찬한 교재가 없는 상황에서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문학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훨씬 어렵게 느껴지고 특히 교수는 수업 내용, 수업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 초기 수업 때 텍스트는 거의 모든 문구마다 교수의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작품 이해를 위한 읽기가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제시한 것과

12) 필자가 지금까지 교수해본 작품은 약 15편 정도 된다. 구체적인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동인 『감자』, 염상섭 『두 파산』,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현진건 『운수 좋은 날』, 김유정 『동백꽃』, 이상 『날개』,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정비석 『성황당』, 황순원 『소나기』, 이근찬 『수난 이대』, 전광용 『꺼삐딴 리』, 황석영 『삼포 가는 길』, 김승옥 『무진기행』, 최인훈 『웃음소리』, 최인호 『타인의 방』, 이문열 『필론의 돼지』

같은 완벽한 한국문학 강독 수업은 아직 실천해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업여건이 열악해서 어떤 수업모델을 시도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데다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이런 모델의 수업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열악한 수업조건을 개선시켜 문학 강독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학 강독 교육 소기의 교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저한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문학작품을 접함에 있어서의 난이도는 한국어를 배운 시간과 반비례한다. 따라서 여러 학습단계의 다양한 실력의 한국어 학습자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 작품을 선별하여 배울 수 있게 다양한 난이도와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이 수록된 문학 강독 통일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가령 기초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배우기에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장르별로 수 편씩 수록하여 초급단계에서부터 일부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작품들도 그 난이도에 따라 수 편씩 선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굳이 수 편씩 수록하여야 하는 이유는 같은 한국어 수준이라도 학생들이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선호도를 달리하기 때문이다.¹³⁾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현재 해마다 그 대학수를 달리 통계해야 할 정도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로에 있으며 작년과 올해에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대학만 해도 약 5-6개 대학이 있는데 그 수치가 정확한지

13) 필자가 문학 강독을 교수할 때 김유정의 『동백꽃』을 꼭 선택하곤 하였는데 학생들이 재미없다고 불평했다. 재미가 없는 이유로는 학생들은 농촌생활도 익숙하지 않는데 농촌생활을 제재로 했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흥미있어 하던 것이었으나 학생들이 달라지면서 취미도 완전히 달랐고 선호하는 작품도 달라진 것이다.

도 보증하기 어렵다. 확실한 사실은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한국문학 강독 과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 대학마다 한국문학 전공 교수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체로 교재를 편찬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학교도 많다.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 기초 한국어 교재를 비롯한 기초 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학마다 문학교재 개발에 투자할 인력, 시간적, 물질적 기반이 미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일교재를 개발한다면 중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교재 개발은 한국과 중국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의 방대한 작품에 대해 중국 교수들은 한국 교수들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작품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문학교수의 현장 경험은 중국 교수들이 풍부해서 중국의 문학수업 현장에 어떤 작품들이 가장 적절한지를 잘 알고 있다. 한국 문학작품의 선별은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과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윤여탁, 2004: 18). 윤영은 소설작품의 선별기준을 여섯 가지로 하고 있고 서영빈은 문학텍스트의 특징을 신뢰성, 안정성, 문화성, 교양성, 취미성으로 개괄하면서 장르의 배정, 장르 순서의 배치, 정전과 난이도, 현실성, 분량 등 요소를 고려하여 교재를 편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문학작품 선별 기준을 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윤영, 1999 / 서영빈, 2001: 317-319).¹⁴⁾

둘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과 음성 보조 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대중적 소통의 지배적인 매개로서의 멀티미디어가 담당하는 문화적 위상은 점점 확대되는 일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14) 작품을 선별한 다음에는 보다 다양한 수업내용을 제시하여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학생들에게 선별하여 수업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과 음성 자료를 적절히 이용한 다양한 장르의 통합적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고 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텍스트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작품들을 먼저 영상자료를 감상한 후 구체적인 작품을 접한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훨씬 많이 덜 수 있다. 필자는 김동인의 『감자』나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등을 영화를 보여주고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작품 이해도 수월해졌고 문학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높아져 텍스트의 미학을 어느 정도 감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영상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장편소설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영화를 통해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이해한 후에 작품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교수한다면 장편소설에 대한 수업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들도 영상이나 음성화된 자료와 결부시켜 수업을 조직할 수 있다면 어려운 문학수업을 보다 활기차고 흥미있게 조직할 수 있으며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문학적인 수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⁵⁾

특히 본격적인 한국문학사 교수를 위해서 영상자료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대량의 문학작품을 다뤄야 하는 문학사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영상자료를 통해 한국문학작품을 접하게 하는 것은 시간은 줄이면서 효과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중국 내의 한국어 학과가 거의 없다. 이 작업은 개인의 생각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 방송이나 디지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부문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15) 일부는 음반 자료를 이용하여 좋은 강의 효과를 보았다는 강의 사례도 있다(김영옥, 2004: 134-135).

셋째, 한국문학 강독 보조 자료로 한·중 대조 번역 작품집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이 비교적 어려운 한국문학작품을 혼자 읽어내려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한국어로 된 원작과 중국어로 된 번역문을 동시에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 자료가 개발되면 학생들이 한국문학 작품 독서량을 늘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학작품 독서가 밑바탕이 되면 문학수업에 가까운 한국문학 강독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중국은 기초교재 개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와 같은 보조 자료들은 전혀 미개발 상태에 있다. 중국의 문학전공 관련 교수들이 힘을 합하여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갈 필요가 절실하다.

5. 결론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학교육에서의 세 가지 모델은 하나의 모델이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언어 모델에서도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결들여지게 되고 문화 모델에서도 언어적, 문학적인 요소들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어느 것에 더 치중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학생들의 곧바로 한국 작품에 대한 이해력으로 통한다. 이해력이 높으면 수업에서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요소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언어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언어문화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문학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의 모든 대학들은 한국문학작품 강독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학들에서 한국문학사까지 배

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문학교육은 문학소양을 쌓아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언어·문화 능력의 함양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실지 수업 현장에서는 작품 이해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다한 어휘량과 문맥적 의미의 어휘, 한국적 논리의 문장들이 학생들의 이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학기의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문학작품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족함은 이후 연결되는 강의인 한국문학사에서 많이 메워지지만 적절한 교재가 없는 등 수업 여건은 별로 좋지 않으며 중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별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통일문학교재 편찬이 절실하고 영상이나 음성자료, 한중대조번역 문학 작품집 등 보조 자료의 개발을 통해 보다 문학적인 수업에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문학교육, 언어문화

* 본 논문은 2004. 10. 31. 투고되었으며, 11. 10. 심사가 시작되어 11.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 자료

- 강은국(2000),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과과정 연구」,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 연구소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 교육」, 『국어교육연구』제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 김대행(2003), 「한국문학사와 외국어 능력」, 『한국어 교육 논문집』,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
- 김영옥(2004), 「문학에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연구」, 2004년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회 학술대회 『한국(조선)어 교육을 위한 논문집』.
- 김해수(2000), 「연변대학 조문학부 교과 과정」, 한국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 연구소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 민현식(2003), 「국내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수요목』, 국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박은숙(2004),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방안 연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 연토회 논문집.
- 박청(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서영빈(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학교재 개발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조선)어교육의 현황과 장래』, 탑출판사.
- 우한용(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3집, 서울대학교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유지동(2000), 「21 세기를 향한 한국학 학과 한국어 과정 설치」, 연변과학기술 대학 한국학연구소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제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03a),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제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03b),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국장(2000), 「낙양외대 한국어과 교과과정」, 한국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 이기성(2003), 「장르통합적 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문학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윤 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 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논문.
- 지수용(2004), 「대학교 교양으로서의 한국문학교육에 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 제8회 연토회 논문집.
- 황인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5·26집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 Abstract

Th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China

Jin Jingshan

The three models of Literature education are interconnected as one but not separate. The language mode is often garnished with cultural elements and the cultural model does not exclude the linguistic element or literary element either. And it only depends on where you want to place the emphasis on. But somehow it entirely decides the Korean capability of our students. That is, our students' understanding towards the works of Korean. If they have a good understanding they would find the work cultural, or with much more literal elements. If they don't, they would be tied up with linguistic way of thinking.

During the junior or senior year, the education of Korean in China reaches an advanced stage and will focus on some major studies. To improve the students' Korean capability and to educate the specialists in Korean Language, the education puts much more emphasis on the linguistics. Therefore, the universities in China now all set up Korean Linguistics Course and most of the universities even teach Korean Linguistics History as well. But as for the Chinese students, the Korean Linguistic Education is far beyond a mental cultural class that the public first expected. The cultivation of capabilities of linguistics and culture should be in focus, but actually during the classes, we put lots of time and efforts on the understanding. It is the excessive vocabulary and the words used in certain contexts that obstruct the students from understanding the sentences in Korean

way of logic. As a result, in one semester, the linguistic work, which was taught to the students, is very restricted. When opening the Korean Linguistic History Course, although this shortage is a lit improved, the lack of appropriateteaching materials and other poor conditions do not construct a good infrastructure of Korean Linguistic Education in China. Accordingly we should attempt to unify the editing of prime teaching materials and also use the videos, tapes, Korean- Chinese translated linguistic work or other assistant materials to help our students with the Korean linguistic class.

[Key Words] Korean Langn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Literature Education, Langnage Culture